

비행을 극복한 청소년집단의 가족레질리언스에 관한 연구

양 무 희(동의대학교대학원 가족상담학과 석사과정)

윤 경 자(동의대학교 보육·가정상담학과 교수)

I. 서론

어떤 가족들은 위기와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역기능적이거나 해체되기도 하지만 어떤 가족들은 보다 더 강화되고 자원이 풍부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위험 모델의 관점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위협에 노출될수록 적응수준이 더 많이 저하된다는 것을 가정하는데 이 관점으로는 위기나 역경을 극복한 가족을 설명하는데 한계점을 지니게 된다.

이런 위험 모델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족레질리언스 접근은 위기나 역경에 처한 가족을 역기능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받고 있는 가족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이 가족에게 있는 잠재력과 자원은 역경을 통해 발달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성장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 과정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촉진되어진다고 보는 개념들이다(Walsh 1996).

많은 연구 결과들은 청소년 비행의 중요한 원인이 가정의 역기능적 환경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가족레질리언스를 통해 청소년의 비행이 극복되고 있음을 연구한 결과는 별로 없다. 본 연구는 가족 리질리언스 접근으로 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행청소년 가정의 가족레질리언스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패널을 비행의 유무, 비행의 정도에 따라 나눈 여러 집단 간에는 가족과 정을 통한 가족레질리언스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가족과정을 통한 가족레질리언스는 자아통제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비행정도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리질리언스적 접근

가족레질리언스(family resilience)란 가족들이 위기나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주요 과정을 말한다(Walsh, 1996).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가족레질리언스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Singer 등(1993)은 유연한 의미해석, 균형 잡힌 대처, 유연한 상호의존을 포함하고 있으며, McCubbin과 McCubbin(1993)은 가족탄력요인으로 가족의 대처응집력, 가족내구력, 가족의사소통유형, 그리고 사회적 지지 등을 들었다(이은희, 2000). Walsh(1996)는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을 가족레질리언스의 핵심요소로 들었다

2. 가족과정

가족과정이란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가족구성원들의 상호관계를 혹은 가족행동의 내적 과정을 말한다. 가족 내에서의 감정, 사랑, 경계, 의식, 패러다임, 규칙, 일상생활 및 의사결정과 자원관리 등이 포함된다. 가족레질리언스는 위와 같은 가족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발달된다. 가족과정 중에서 가족레질리언스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청소년 비행에 있어 강력한 예측변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양육행동, 의사소통 등이다.

3. 자아통제력과 청소년 비행

Hirschi(1969)는 그의 사회통제이론에서 모든 사람은 비행을 저지르고자하는 욕망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 유대로 인해서 이러한 욕망은 규제되며 이탈행동을 하고자 하는 충동이 억제된다고 보았다. 유대감약화로 인한 낮은 자아통제력이 범죄의 원인이라는 Hirsch의 주장은 청소년 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유순화,2003; 고정자, 2005; 하영희, 2003). 즉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청소년들은 약물 사용이나 비행의 가능성이 감소하는 반면(Hughes, Power, Francis,1992; Lee,1993)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청소년들은 비행에 관여하거나 약물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organ,Chang.&Pettit,1994; Rogenbaum1989; 백혜정, 2009 재인용).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 가운데 3449명의 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중2패널 1차년도 조사자료(2003년도)와 4차년도 조사자료(2007년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version 14.0)을 사용하여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각 집단 간의 가족레질리언스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자아통제의 매개변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주요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정을 통한 가족레질리언스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애착, 부모자녀대화, 부모감독, 부부갈등, 자녀폭력 등 5개의 변수를 측정하였다.

부모애착은 ‘부모님과 나는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등의 3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신뢰도 .81). **부모자녀의사소통**은 ‘부모님과 나는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나누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등 3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신뢰도 .79). **부모감독**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은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등의 4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신뢰도는 .87). **부부갈등**은 청소년이 보고한 부부간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두 문항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다’, ‘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를 사용하였다(신뢰도 .63). **자녀폭력**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 2문항을 사용하였다(신뢰도 .75). **자아통제력**은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가리지 않는다’, ‘나는 학교숙제를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다’ 등 6문항을 역점수화하여 사용하였다(신뢰도는 .68).

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14종류의 청소년 비행을 비행유무와 비행빈도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담배피우기와 술마시는 청소년 때에 한두 번 경험할 수 있는(술마시기 경험: 2003년도 패널 30.6%, 2007년도 패널 53.3%, 담배피우기 경험: 2003년도패널 13.3% 2007년도패널 14.9%) 지위비행이므로 비행에서 제외하고 무단결석, 가출경험, 성관계 경험,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 빼기,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원조교제,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남을 헐박하기, 다른 친구들 왕따시키기,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 등 12문항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응답자의 성별과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을 먼저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는 각각 50%씩 구성되어 있다. 양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2003년도에는 93%, 2007년도에는 92%였다.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고등 학교졸업이 44%로 가장 많고 대학교졸업이 30%로 뒤를 이었다. 어머니가 가사 이외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2003년도 자료에서 49%였으나 2007년도에는 52.5%로 늘어났다. 가정의 월평균소득은 2003년도에는 약 300만원 2007년에는 약 336만원이었다.

2. <연구문제 1>의 분석결과

청소년패널을 비행의 유무, 비행의 정도에 따라 나눈 여러 집단 간에는 가족과정을 통한 가족리질리언스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2003년도 자료와 2007년도 자료를 통해서 4집단으로 나누었다. 2003년에 비행을 했다가 2007년도에 비행을 하지 않는 집단을 '비행극복 집단'으로, 2003년도에 비행을 하지 않다가 2007년도에 비행을 한 집단을 '비행시작집단'으로, 2003년에 비행을 하고 2007년도에도 비행을 하는 집단을 '비행지속집단'으로, 2003년도에 비행을 하지 않았고 2007년도에도 비행을 하지 않은 집단을 '비행없는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비행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응답자를 나누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비행극복 집단은 850명(28.7%), 비행시작집단은 103명(3.5%), 비행유지집단은 131명(4.4%), 비행없는 집단은 1874명(63.3%)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비행유무에 따른 4종류집단

집단종류	비행극복집단	비행시작집단	비행유지집단	비행없는 집단
비행변화구분	2003년비행유 →2007비행무	2003비행무 →2007비행유	2003비행유 →2007비행유	2003년비행무 →2007비행무
N=2958(%)	850(28.7)	103(3.5)	131(4.4)	1874(63.3)

1) 비행극복집단과 비행유지집단간의 가족리질리언스

<표 2> 비행극복집단과 비행시작집단간의 독립표본 t - test

	t 점수	자유도	평균차	표준오차
부모애착의 변화	3.018**	951	0.29082	0.09637
부모자녀대화의 변화	3.470**	951	0.37582	0.10830
부모감독 변화	2.256**	951	0.21082	0.09319
부부갈등의 변화	-2.214**	951	-0.23958	0.10832
자녀폭력 변화	-2.053**	951	-0.22103	0.10767
자아통제의 변화	6.208**	951	0.48226	0.07768

*p<.05, **p<.01

비행극복집단에서는 부모애착, 부모자녀대화, 부모감독의 요소는 증가되었고, 부모자녀 간의 유대감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 자녀폭력 요소는 감소되었으므로 가족리질리언스가 향상되어 자녀의 비행을 극복할 수 있었다. 반면 비행시작집단에서는 부모애착, 부모자녀대화는 감소되고 부부갈등, 자녀폭력은 증가하여 가족유대감이나 사회적지지지도가 낮아져 가족리질리언스도 전보다 줄어들어 자녀의 비행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겠다. 두 집단간에는 가족리질리언스를 형성하는 가족과정의 모든 변수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2) 비행극복집단과 비행유지집단간의 가족레질리언스

<표 3> 비행극복집단과 비행유지집단간의 독립표본 t- test

	t 점수	자유도	평균차	표준오차
부모애착의 변화	0.495	979	0.04338	0.08761
부모자녀대화의 변화	0.731	979	0.07171	0.09811
부모감독 변화	2.149**	979	0.17582	0.08306
부부갈등의 변화	-0.604	979	-0.58515	0.9620
자녀폭력 변화	-1.224	979	-0.11901	0.09726
자아통제의 변화	2.363**	979	0.16444	0.06960

*p <.05 **p<.01

비행극복집단과 비행유지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가족과정요소는 부모감독과 자아통제였다. 비행유지집단보다 비행극복집단에서 부모감독의 변화가 더 높았고, 그에 따라 자아통제력도 더 높았다.

3) 비행극복집단과 비행없는 집단간의 가족레질리언스

<표 4> 비행극복집단과 비행없는 집단간의 독립표본 t-test

	t 점수	자유도	평균차	표준오차
부모애착의 변화	1.0151	1457.535	0.03724	0.03668
부모자녀대화의 변화	1.837	1482.419	0.07578	0.04126
부모감독의 변화	2.518**	1536.045	0.08991	0.03571
부부갈등의 변화	-3.662**	1542.076	-0.15219	0.04156
자녀폭력 변화	-4.158**	1422.658	-0.18239	0.04037
자아통제의 변화	4.468**	1518.963	0.13229	0.02961

*p <.05 **p<.01

비행극복집단이 비행없는 집단보다 부모감독이 뚜렷하게 증가하였고(p<.01), 부부갈등과 자녀폭력도 뚜렷하게 감소하였다(p<.01). 즉 비행극복집단의 가족들이 비행없는 집단의 가족보다 비행을 극복하기 위해 부정적 가족과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 가족레질리언스가 향상되었고 이것은 비행청소년이 비행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3.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

‘가족과정을 통한 가족레질리언스는 자아통제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비행정도에 영향을미칠 것이다.’라는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2003년도 자료와 2007년도 자료를 회귀분석하였다.

<표 5> 자아통제가 비행정도에 미치는 설명력(2003도 자료)

변인	Model 1				Model 2			
	B	S.E.	β	t	B	S.E.	β	t
부모애착	0.121	0.043	0.209	2.772*	0.288	0.045	0.500	6.378**
부모자녀대화	-0.031	0.041	-0.052	-.755	-0.017	0.040	-0.029	-0.428
부모감독	-0.108	0.039	-0.176	-2.766*	0.045	0.041	0.073	1.098
부부갈등	0.191	0.034	0.194	5.649**	0.228	0.033	0.232	6.836**
자녀폭력	0.460	0.034	0.441	13.362**	0.512	0.034	0.491	15.004**
자아통제					-0.390	0.034	-0.652	-11.354**
R^2	0.367				0.390			
Model $F(p)$	400.048**				367.241**			

*p <.05 **p<.01

부모애착, 부모자녀대화, 부모감독, 부부갈등, 자녀폭력 등 가족과정요소만 설명변수로 한 것을 Model 1로 하고 가족과정요소와 자아통제를 포함하여 설명변수로 한 것은 Model 2로 하여 자아통제가 비행정도에 미치는 영향력 살펴보고 매개변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가족과정 요소만은 비행정도에 36.7%의 영향력을 설명하고, 가족과정과 자아통제를 포함하여서는 39%를 설명하고 있다. 자아통제를 통한 영향력은 아주 적으나 자아통제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비행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통제는 비행에 대한 부모감독의 영향력을 상쇄시켰는데 이것은 자아통제수준이 높은 집단에게는 부모감독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2007년도 자료에서도 자아통제를 제외한 다섯 가지 가족과정변수들은 비행정도에 39%의 영향력을 설명하였고, 가족과정에 자아통제를 포함한 영향력은 40%로써, 자아통제의 매개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비행을 극복한 청소년집단, 비행을 시작한 청소년집단, 비행을 지속하는 청소년집단, 비행을 하지 않는 집단들 간에 가족과정을 통한 가족기능질리언스에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지, 그리고 가족레질리언스는 자아통제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비행정도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보자 하였다.

연구결과 비행극복 집단은 전체패널의 25%(850명)를 차지하였으며 다른 세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부모애착, 부모자녀대화, 부모감독 등 보호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1) 부부갈등, 자녀폭력 등 위험요인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1). 즉 많은 비행극복 청소년 가족들은 가정에 위기나 가족스트레스가 발생하면 부정적인 가족과정요소 즉 부부갈등, 자녀폭력 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가족과정요소들 즉 부모애착, 부모자녀대화, 부모감독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가족레질리언스를 향상시켜 비행을 극복하고 있었다. 비행유지 집단(4.4%)에서는 부모애착이나 부모감독 등의 보호요인이 증가하였으나 부부갈등이나 자녀폭력 등의 위험요소가 감소하거나 제거되지 않아 비행이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비행극복집단과 비행없는 집단의 경우 긍정적 가족과정보다는 부정적 가족과정이 개선되었을 때 비행극복이 용이하였으며 비행없는 집단의 특성과 유사해짐을 알

수이다. 즉 부정적 가족과정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족레질리언스는 가족레질리언스를 높이는데 아주 유의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가족과정을 통한 가족레질리언스는 자아통제라는 매개변수를 거의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비행 정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부모애착, 부모자녀대화, 부모감독 등의 보호요인보다 부부갈등, 자녀폭력 등의 위협요인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인 것 같다.

[참고문헌]

- 김안자(2009). 가족레질리언스가 가족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지.
- 김옥기·정원철(2009)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고교생자녀의 학교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연구학
- 이은희·손정민(2008).가족탄력성이 만성질환아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한국아동복지학.
- 양옥경·김미옥·최명민 역(2002). 가족과 레질리언스(1998). Walsh. Family Resilience역서
- 민수홍(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청소년학연구.제13권6호
- 정소희(2006). 사회경제적인 지위,부부갈등,자아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사회 복지학회지.
- 고정자(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 Hirsch,T(1969). Cause of Delinquency. Berkley:University of Cailfonia Press
- Werner,E.E.,& Smith,R.S(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Cornell University Press
- McCubbin, H.L & McCubbin, M.A.(1993). Resilience in Family :the role of family schema and appraisal in family adaptation to crises : Sage Publication.

비행을 극복한 청소년집단의 가족레질리언스에 관한 연구

이 정 연(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역경에 처한 가족을 위험 모델이 아닌 강점모델로 접근하여 그들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데 초점을 두는 최근의 연구 경향에 비추어볼 때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 집단의 가족탄력성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두 분 연구자의 열정에 감사를 드린다.

연구자들은 가족들이 위기나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주요 과정인 Walsh의 가족탄력성의 개념에 주목하고, 개인과 가족이 정상적으로 회복 또는 복원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가족과정이라는 동적인 과정을 통해 종단적으로 조사해봄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족탄력성과 자아통제라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해봄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자들의 연구목적에 공감을 하면서 연구방법상으로 몇 가지 좀더 정교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가족탄력성과 가족과정 간의 개념상 혼돈이 우려된다. 가족탄력성은 학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주로 가족의 긍정적인 신념체계, 유연한 역할 분담, 그리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등 가족기능의 제조정에 초점을 두는 개념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의 가족과정은 주로 긍정적/부정적인 가족관계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서 서로 다른 면을 측정한다고 판단된다. 주어진 자료를 2차 분석한다는 제한점이 있기는 하나, 개념상 거리가 있으므로 가족과정을 통한 가족탄력성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둘째, 청소년 패널을 비행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4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를 하였으나, 실제로 비행시작집단과 비행지속집단은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대표성이 적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이 비행청소년들이 어떻게 비행을 극복하였는 지를 종단적으로 보고자 한다면 전체 사례 중 비행극복 집단의 경우 2003년도와 2007년도간의 가족과정의 변화를 paired-t검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집단간의 가족과정간의 차이를 보고자 한다면 비행극복집단과 비행없는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되, 이해를 돕기 위해 2003년도와 2007년도 집단별 평균점수를 각각 제시한 후, 평균의 변화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그리고 <표 4>의 경우 보다 풍부한 해석이 가능하다. 즉, 비행극복집단은 비행없는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가족과정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으나

부정적인 가족과정을 감소시킴으로써 가족탄력성을 회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자아통제의 매개효과를 보고자한다면, 경로분석이 바람직하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으로는 관련변인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할수 있다고 본다. <표 5>에 의하면 다른 변인을 통제했을 때, 자아통제변인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아통제 변인을 투입시 부모감독변인의 효과도 상쇄되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비행정도에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으로는 가족과정보다는 오히려 청소년의 자아통제로 밝혀졌다는 데 더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2007년도 자료에서도 일치하는 지 분석되었으면 한다.